

‘트랜스-동아시아’ 연구 매뉴얼

— 최근 연구 사례를 중심으로

주준영, 최신혜, 신재민, 한정균*

<목 차>

1. 들어가며
2. 트랜스 연구 유형과 사례
 - 2.1 트랜스내셔널
 - 2.2 트랜스휴머니즘
 - 2.3 트랜스미디어
3. 동아시아 어문학에서 트랜스 연구 사례
 - 3.1 동아시아 문학·문화에서 트랜스 연구 사례
 - 3.2 동아시아 언어학에서 트랜스 연구 사례

1. 들어가며

‘트랜스(trans)’는 사전적으로 ‘횡단’, ‘조월’, ‘변형’을 의미하며, 두 가지 이상이 접촉하면서 단순히 하나로 합친 것보다 더 많은 결과를 창출한다는 점에서 ‘탈경계’, ‘상호’, ‘융복합’, ‘혼종성’ 등의 의미를 포용할 뿐 아니라 더욱 풍부한 가능성을 열어주는 상위의 개념으로 볼 수 있다.¹⁾ 본 자료집에서는 고려대학교 4단계 BK21 중일교육연구단의 모토인 ‘트랜스-동아시아(Trans-East Asia) 시대를 선도하는 미래 인재 양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트랜스-동아시아 연구 매뉴얼(2022)’에 이어, ‘트랜스-동아시아

* 고려대학교 4단계 BK21 중일교육연구단 신진연구원

1) 류호현·선민정·이가현·장정임(2022:4-6) 참고. ‘트랜스(trans)’의 의미 및 유사 개념과의 차이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본 연구단의 ‘트랜스-동아시아 연구 매뉴얼(2022)’을 참조하기 바란다.

(Trans-East Asia)’ 연구 방법에 해당하는 최근의 연구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우선, 트랜스내셔널, 트랜스휴머니즘, 트랜스미디어 연구 사례를 통해 트랜스 연구 유형을 살펴보고, 이어서 본 교육 연구단의 주 전공영역인 동아시아 어문학의 영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최근 트랜스 연구 사례들을 소개함으로써 본 교육 연구단의 어젠다인 ‘트랜스-동아시아’ 연구의 다양한 가능성을 모색한다.

2. 트랜스 연구 유형과 사례

2.1 트랜스내셔널

트랜스내셔널이란 1990년대 이후 인류학자와 사회학자들이 국제 이주 현상에 주목하면서 사용한 용어이다. 국가 또는 민족의 경계에 국한되지 않는 다양한 사회적 현상들을 해석하기 위해 고안된 개념으로, 현재는 국제 이주에서 파생되는 사회·문화적 현상들을 해석하는 데까지 두루 쓰인다.²⁾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에 이루어진 연구들은 트랜스내셔널이라는 관점을 통해서 민족과 국가를 뛰어넘은 공간의 재구축과 마이너리티간의 연대를 주창하고 있다.

트랜스내셔널 최근 연구 사례로는 손민석(2022)을 들 수 있는데,³⁾ 그는 최근의 세계 정세에 주목하며 지난 세기 후반 영토성의 위기와 함께 탈근대 질서가 주목받았다면, 이제는 지정학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면서 포스트-탈근대 패러다임이 관심을 받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방인 환대와 공생을 향한 세계시민주의 규범과 민족적 자결 원칙을 조화시

2) 이종원·윤여탁(2018), 「계승어 교육에서 운동주 시의 활용 가능성 - 트랜스내셔널리즘의 관점에서 -」, 『문학교육학』 61, 272.

3) 손민석(2022), 「트랜스내셔널 이주 시대, 환대와 공생을 위한 공동체적 실천 : 세일러 벤하비브의 세계시민주의 재검토」, 『통일과평화』 14(2), 425-459.

킨 벤하비브의 작업을 검토하며, 벤하비브의 논리가 현실에서는 배타적으로 표출되고 있는 점을 분석하고 있다. 이를 통해 트랜스내셔널에 대한 재귀적인 방향성이 필요시 되는 시점이라는 것이 본 연구의 시사점이다.

2.2 트랜스휴머니즘

트랜스휴머니즘이란 사이버네틱스(Cybernetics)적인 유기체론을 휴머니즘에 접목시킨 것을 말한다. 즉, 기존의 인간주의(휴머니즘)를 넘어서는 것으로 그 용어의 기원은 헉슬리가 1957년 발표한 책 『새 포도주를 위한 새부대』에서 시작되었다(이관표 2022:317 참조).⁴⁾ 트랜스휴머니즘은 휴머니즘에서 포스트휴머니즘으로 가는 과도기적 단계라고도 설명되는데, 포스트휴머니즘이 차이와 차별을 극복하는데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는데 반해 트랜스휴머니즘은 인간 육체의 한계를 극복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트랜스휴머니즘은 하나의 문화 운동이라고 볼 수도 있다. 트랜스휴머니즘의 최근 연구 사례로는 이관표(2022), 김휘택(2023)을 들 수 있는데, 논문의 의의와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① 이관표(2022), 「미래 포스트/트랜스휴머니즘에서 정의의 문제: 전통 정의론으로 보는 미래 인간론」, 『국제문화기술진흥원』 8(5), 315-320.

본 연구는 마이클 샌델(Michael Sandel)의 정의론을 위시한 전통적인 정의론이라는 프리즘을 통해 트랜스/포스트휴머니즘적 문제들을 제시하여 이러한 상황의 해결책을 모색한 연구이다. 트랜스/포스트휴머니즘이 가지고 있는 증강 인간이라는 개념이 기존의 정의론적 관점으로 볼 때 정의로운가를 논한 연구이다.

4) 이관표(2022), 「미래 포스트/트랜스휴머니즘에서 정의의 문제: 전통 정의론으로 보는 미래 인간론」, 『국제문화기술진흥원』 8(5), 317 참조.

필자는 샌델의 정의론에 관한 3가지 기준을 차용하여 트랜스/포스트휴머니즘의 문제점을 밝히고 있다. 먼저 아리스토텔레스의 미덕중심의 정의론을 통해 트랜스휴머니즘이 공동체 유지라는 가장 중요한 목표에 대해서 그 기술의 독점에 문제가 있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경제적 번영 중심의 정의론은 제러미 벤담의 양적 공리주의적 관점에 선다면 현재의 트랜스/포스트휴머니즘에 가장 큰 지지를 보낼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임마누엘 칸트와 존 롤스의 자유중심주의 정의론의 관점에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칸트의 경우 인간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활용하라는 정언명령을 주장하였는데, 트랜스/포스트휴머니즘의 경우 인간의 존엄성과 독특성을 다른 존재들과 비교하며 특별하지 않다고 하기에 칸트의 주장과 정면으로 대비된다. 또한 롤스의 경우는 평등과 차등의 원칙을 주장하는데, 트랜스/포스트휴머니즘의 경우 이러한 롤스의 원칙과 반대된다. 칸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롤스도 인간의 존엄성과 독특성을 인정하면서 논의를 개진하는데 반해 트랜스/포스트휴머니즘은 인간의 존엄성과 독특성이 흐릿해지는 지점에서부터 무엇인가를 시작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롤스의 자유주의적 정의론은 트랜스/포스트휴머니즘을 인정하지 못할 것이다. 이처럼 필자는 기존의 정의론이 가지고 있는 관점에서 트랜스/포스트휴머니즘이 어떻게 받아들여질 것인가라는 점을 분석하였다.

② 김휘택(2023), 「포스트휴먼, 트랜스휴먼, 그리고 인간 정체성의 분화」, 『다문화콘텐츠연구』 45, 187-219.

김휘택(2023)은 인간이 하나의 고유명사에서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인해 어떠한 알고리즘에 속하지 않은 것이라는 소외되고, '무엇이 아닌 것'이라는 상대적인 존재로 규정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러다이트 운동은 교육을 통해서 해결되었지만, 근대에서 현대로 넘어오면서 예비취업자들에게 공학적 소양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인문학의 가치는 절하되고, 공학의 가치는 과평가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기존의 인문학과 사회과학에서 다루어졌던 ‘당위’나 ‘가치’와 같은 ‘삶’과 밀접한 단어들은 과학의 범주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필자는 트랜스휴먼과 사이보그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포스트휴먼을 사용하며, 포스트휴먼은 이제 휴먼의 타자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두 개념은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트랜스휴머니즘은 포스트휴머니즘에 비해 중도적인 입장에 서 있다. 이러한 트랜스휴머니즘의 역할은 과학과 기술 발전의 성과이면서 인류가 지금까지 쌓아온 자산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다. 논문은 포스트휴머니즘과 트랜스휴머니즘을 인간 고유의 정체성과 관계하여 인간의 정체성이 분화되는 상황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2.3 트랜스미디어

트랜스미디어란 1990년대 활동한 작가이자 문화연구가인 마샤 킨더(Marsha Kinder)가 하나의 캐릭터가 여러 플랫폼에서 확장되는 방식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한 것이 최초이다.⁵⁾ 횡단, 추월을 뜻하는 트랜스와 미디어의 합성어로, 미디어를 초월한 미디어의 의미로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여기에 감성을 더한 플랫폼을 구축하여, 발전된 미디어 기술을 흡수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다양한 체험을 제공하여 소비자를 만족하게 하는 미디어를 뜻한다. 과거에는 콘텐츠 제작이 단일 매체를 통해 단일 텍스트를 전송하는 것이 주를 이루었다면, 이제는 단일 텍스트를 다양한 매체 형식으로 변환하는 스토리텔링 접근 방식이 널리 사용되고 있는 시점이다.⁶⁾ 트랜스미디어의 최근 연구 사례로는 이주영(2023)을 들 수 있는데, 논문의 의의와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5) 윤지우(2023), 『〈광문자전〉의 트랜스미디어 콘텐츠 활용 양상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참조.

6) 최윤영(2020), 『트랜스미디어 스토리월드의 확장 사례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참조.

① 이주영(2023), 「제노사이드 다큐멘터리 영화의 트랜스미디어적 변화 연구: ‘체현’과 ‘전치’ 중심으로」, 『민주주의와 인권』 23(1), 215-248.

본 논문은 2000년대 이후 두드러진 ‘감독-나’라는 프리즘이 ‘가해자(관찰자)-나-카메라(감독)’ 혹은 ‘피해자(관찰자)-나-감독(카메라)’라는 관점으로 세분화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보편적인 구조인 ‘관찰자-감독-카메라’라는 관점의 작품들이 미학적, 양식적 실험을 촉발하여 다양한 매체로 다변화된 것이라고 말하며 이러한 변화를 ‘트랜스미디어적 변화’라고 설명하고 있다. 본 연구는 2010년 이후 제노사이드 다큐멘터리 영화의 ‘트랜스미디어적 변화’를 몇 가지 경향성을 통해 살펴보았다. 추모와 애도를 체험하도록 이끄는 최근의 ‘트랜스미디어적 변화’는 어떤 방식으로 진화되어 왔으며 제노사이드 다큐멘터리 영화와 융합되어 어떠한 변화를 견인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체현’과 ‘전치’라는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동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어떠한 의미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살펴본 연구이다.

3. 동아시아 어문학에서 트랜스 연구 사례

이장에서는 동아시아 문학·문화, 어학에서 ‘트랜스-동아시아(Trans-East Asia)’ 연구 방법에 해당하는 최근의 연구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3.1 동아시아 문학·문화에서 트랜스 연구 사례

① 나누리·김수미·김준연(2024), 「近世韓·中·日 女流 詩人의 사랑시에 대한 ‘트랜스 동아시아적’ 접근」, 『한중언어문화연구』 71, 179-215.

〈논문 중 발췌〉

동아시아 근세에는 계급과 신분 등 다양한 측면에서 여성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극심했다. 문학 창작 활동을 남성이 거의 독점하던 여건 속에서도 여류 시인들의 사랑시가 면면히 전해지는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 아닐수 없다. 본고는 이런 시각에서 비슷한 시기에 한·중·일 3국에서 한시 창작 활동을 펼쳤던 한 여류 시인들의 사랑시를 살펴보고, ‘트랜스 동아시아’의 시각에서 그 결과를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한국의 조선 중기, 중국의 명말청초 시기, 일본의 에도 시대 등 역사적으로 가까운 시기에 동아시아 삼국에서 사랑시 창작으로 일정한 성취를 거둔 여류 시인을 두 명씩 선정해 이들의 시 세계를 살펴보았다. 남성에 비해 창작 환경이 크게 열악했던 이들 여류 시인들이 이러한 제약을 극복할 수 있었던 배경을 살펴보고, 사랑시를 통해 표출하고자 했던 정감 세계를 심도 있게 고찰하였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남성에 비해 사랑의 감정을 충실히 표현하는 특징을 보여주었다고 평가된다. ‘트랜스 동아시아’라는 시각에서 접근할 때 이들의 사랑시는 유교라는 사상과 한시라는 문학 장르의 교차점에서 제각기 특수한 개성과 여건에 따라 일률적이지 않은 다양성을 보여주었다.

② 류호현·이가현(2022), 「트랜스 동아시아 BL 대중화 경향 연구 - 한·중·일 3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일어일문학』 94, 149-168.

〈초록 중 발췌〉

본 논문은 동아시아 3국의 BL 콘텐츠와 그 관련 산업의 발전 경향을 분석, 비교하여 한·중·일 각국에서 BL장르가 대중화되는 과정과 그 특수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BL 문화의 다양한 콘텐츠들이 지속적으로 생산, 소비되며 점차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BL은 다양한 미디어로 확장되며 더 광범위한 대중과 접촉하게 되었다. 주목할 점은 이러한 BL의 대중화 경향이 동아시아 3국의 BL 콘텐츠에서 동시대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트랜스-동아시아적인 문화현상이라는 것인데, 각국의 BL 콘텐츠가 서

로 다른 사회·문화·정치적 콘텍스트 속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 대중화의 방향성은 다르게 나타난다. 고노하라 나리세의 『상자 속』 분석을 통해 일본 BL 대중화의 특징 중 하나로 현실에 대한 침투 경향을 지적하였고, 묵향동후의 『마도조사』를 통해 초현실적 세계관과 모듈형 섹슈얼리티 운용을 중국 BL의 특징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BL 문화 지형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동아시아 3국 BL의 대중화 현상이 동시대 서브컬처 영역의 중요한 트렌드 중 하나임을 확인하였다.

③ 강희진(2020), 「재일조선인 시에 나타난 트랜스내셔널의 특징 및 의미」, 『어문연구』 114, 359-377.

본 연구는 디아스포라 연구의 하나로 트랜스내셔널리즘이라는 관점에서 재일조선인의 시문학을 해석한 연구이다. 필자는 지금까지의 재일조선인 연구가 ‘민족’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이루어져 온 점을 지적하며, 이것이 재일조선인 문학의 범주와 주제를 구속시키는 도그마로 사용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트랜스내셔널 인문학이라는 국민국가의 범주를 넘어서는 개념을 가지고 와서 ‘민족’이라는 한계성을 벗어나 재일조선인 문학을 바라보려는 시도를 하였다. 필자는 재일조선인 전혜미의 시를 예로 들며 경계를 인식하는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의 위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이를 통해 경계를 무화시키고자 하는 방식을 트랜스내셔널하다고 칭하고 있다. 또한 재일조선인들의 공간에 대한 인식이 현실 세계가 아닌 환상의 공간에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현실에서 끊임없이 재구성되고 변형되는 트랜스내셔널한 정체성을 공고히 하고자 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④ 안민화(2021), 「박수남 감독 다큐멘터리 속 오키나와의 강제징용 군속과 위안부 재현 연구: 마이너 트랜스내셔널한 기억과 ‘비커밍 아웃’으로서의 증언」, 『문학과영상』 22(3), 739-778.

본 연구는 오키나와 전투에서의 조선인 생존자, 재일조선인 피폭자, 위안부 등 마이너리티 역사를 기록해 온 박수남 감독의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마이너리티에 대해 분석한 논문이다. 박수남 감독의 영화에서는 조선인 군속과 오키나와 주민들이라는 마이너리티간의 피해에 대한 공유와 연대가 그려져 있다. 이는 슈메이 쉬, 프랑소즈 리오네트가 주창한 마이너 트랜스내셔널리즘적 시각이라고 할 수 있다. 필자는 이러한 마이너 트랜스내셔널이라는 관점을 통해서 박수남의 영화들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재일조선인 여성 영화감독인 박수남의 〈오키나와로부터의 증언〉을 중심으로 재일조선인 군속과 위안부, 그리고 오키나와 사람들의 전쟁에 대한 피해자라는 위치를 마이너 트랜스내셔널이라는 관점을 통해서 바라본 연구이다. 필자는 박수남이 다큐멘터리라는 영화적 장치를 이용해서 실험적인 수행을 이루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가라는 개념을 뛰어넘어 트랜스내셔널한 관점에서 마이너리티들을 사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언급하였다.

⑤ 김진아(2023), 「인류의 진화와 포스트휴머니즘 담론에 대한 논고 - 트랜스휴머니즘과 순자의 인간관을 중심으로-」, 『윤리연구』 140(1), 89-113.

필자는 흑사병, 코로나 등의 예를 들며 역사적으로 존재의 취약성을 절감하게 하는 사건들은 개인적인 삶의 태도를 바꿀 뿐만 아니라 인간에 대한 근원적인 물음을 던지면서 동시에 사회적 대전환기를 맞이하는 길을 열어주었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필자는 순자의 사상을 중심으로 하여 포스트휴머니즘 시기에 제기되는 인간성 논쟁에 대한 답을 찾고, 보다 다양한 사상적 스펙트럼을 통해 포스트휴머니즘 윤리를 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 연구이다. 또한 필자는 과학기술의 발달이 정점에 이르러 트랜스휴머니스트들이 꿈꾸는 세상이 되더라도 인간의 취약성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인간의 근원성에 존재하는 채워지지 않는 부족함이 욕망을 계속해서 재생산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다 근원적인 한계를 빨리 깨달

아 이를 극복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생명공학은 유전자를 조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공생명체를 탄생시키는 데 성공하였다. 휴머니즘의 한계를 넘어 포스트휴머니즘으로 가는 지금, 트랜스휴머니스트들은 과학기술에 기대어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종으로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순자가 주창한 인위적인 노력을 통해 인간의 약한 본성을 극복하고, 새로운 존재로 변화해 나가야 한다는 그의 사상은 어떤 면에서 트랜스휴머니즘과 결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진정한 인간의 한계가 무엇인지와 그것을 극복해가는 과정은 다르게 제시된다. 과학기술의 발전과 인간의 욕망이 만나 예측하지 못할 미래를 만들어가는 시점에서, 순자의 사상은 인류가 나아갈 방향을 가르쳐주는 나침반이 되어 줄 것이다.

⑥ 김미지(2021), 「한중일의 ‘제임스 조이스’ 담론과 매체 네트워크」, 『구보학보』 28, 95-122.

〈초록 중 발췌〉

20세기 현대문학 또는 모더니즘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인 제임스 조이스와 그의 작품 『율리시스』는 등장과 동시에 구미 문학계에서 화제를 불러 일으켰고 곧이어 동아시아의 문학장 안에도 빠르게 소개 흡수되었다. 『율리시스』는 아일랜드를 무대로 쓰였지만 뉴욕에서 연재되고 파리에서 단행본이 출간되었으며 미국에서 외설 논쟁으로 금서가 되는 등 국경을 초월한 텍스트로서 모더니즘 문학의 탈식민성과 난해성을 상징한다. 특히 일본에서 1930년대 초 등장한 두 종의 번역본과 조이스에 대한 활발한 소개는 한중일 문학장에서 다양한 논의들과 담론을 파생시켰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신심리주의 및 리얼리즘 논쟁과 근대문학과 소설의 새로운 전망에 대한 논의였다. 이 글은 한중일에서 조이스와 그의 작품에 대한 이해와 비평의 시도들이 갖는 담론의 패턴을 추적해 보고 서로 얹혀 있는 텍스트들의 상호관계를 재구축하기 위해 쓰인 것이다.

⑦ 이시환(2023), 「근대 초기 한중일 번역문학의 상호텍스트성 -한중일 『십오소년표류기』의 번역을 중심으로」, 『중국어학』 82, 261-286.

〈초록 중 발췌〉

이 논문은 근대 초기 한중일 3국에서 공통적으로 번역된 텍스트 중의 하나인 쥘 베른의 1888년 작 『십오소년표류기』의 한중일 번역본, 즉 1912년 민준호의 『십오소호걸』과 1902년 량치차오의 『십오소호걸』 및 1896년 모리타 시켄의 『십오소년』을 분석 대상으로 삼아, 한중일 동아시아 각국의 문화적 환경 아래에서 번역자에 번역 방법과 의도를 통해 번역과정에서 개입과 전복, 변형과 왜곡 등이 발생하는 과정을 상호텍스트적으로 살펴보았다. 또 한중일 각국의 문체변화의 과정의 일면을 시론적으로 고찰하였다. 민준호 한국어 번역본은 서구 소설의 번역에 단순히 목적에 있기보다는 번역, 즉 엄밀한 의미에서 역술을 통해 모험에 익숙치 않은 한국의 독자들에게 이야기의 신기함을 제공하였다.

⑧ 이경미(2023), 「韓·中·日 고전문학 속에 보이는 여성과 눈(雪)」, 『중국인문과학』 85, 207-225.

〈초록 중 발췌〉

본고는 韓·中·日 고전문학 속에 보이는 여성 서사로서의 눈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동양에서는 눈이 만물을 조용히 감싸 안는 신성한 아름다움으로서 각인되었고, 온화한 동양 여성의 정서가 더해질 경우에는 미감(美感), 감성(感性), 상징(象徵), 초월(超越)의 다양한 이미지로 문학의 세계를 풍부하게 하고 있었다. 눈의 색채와 자태는 여성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기에 적절한 자연의 선물이었다. 그리고 여성의 정서와 감성을 자극하여 사랑하는 연인과 이어주는 낭만적인 매개체가 되기도 하였다. 한편 여성의 맑고 순결한 내면적인 아름다움을, 또한 눈의 차가운 이미지가 전이되어 여성이 처해있던 고난과 역경, 이로 인한 절망적 상황을 상징하기도 하였다. 나

아가 하늘에서 내리는 눈은 천상의 세계와 연결되어 있다고 여겨져,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신성한 존재, 하늘의 심판자로서의 초월적 이미지마저 지니고 있었다. 이처럼 한·중·일 고전 문학 작품 속 여성 서사로서 등장하는 흰 눈은 인생의 동반자로 여성을 성장, 변화시켜 나갔으며, 가부장 사회의 괴로움과 빈민 속에서 위로와 감동마저 주고 있었다. 아름다운 미적 이미지로 출발한 눈이었지만 여성들에게는 감성과 상징을 넘어, 어느새 초월로까지 안내하는 인도자가 되고 있었다.

이경미는 ‘한·중·일’과 ‘고전문학’을 키워드로 하여, 33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특히 최근에는 ‘여성’을 추가하여 관련된 연구 성과를 생산하고 있다.

⑨ 한채민(2023), 「동아시아 고전 서사의 트랜스미디어 연구 : NHK 대하드라마 <다이라노 기요모리(平清盛)>를 중심으로」, 『일본연구』 39, 37-66.

본 연구는 『헤이케모노가타리』를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이란 하나의 이야기가 여러 미디어로 분산되어 전개되거나, 여러 미디어에 걸친 독립적인 이야기들이 하나의 이야기 세계를 공유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헤이케모노가타리』가 2012년이라는 시점에서 새롭게 트랜스미디어화 되는 이유를 설명한 연구이다. 필자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2012년에 NHK 드라마로 <다이라노 기요모리>가 방영된 것은 1904년 러일전쟁 이후 1906년에 『제국문학』에 『헤이케모노가타리』를 국민적 서사시로 위치시킨 것과 동일선상에서 바라보고 있다. 즉, 위기 극복을 위한 내셔널리즘적 수단으로써 『헤이케모노가타리』를 이용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방영 당시 일본 사회가 바라던 영웅상을 만들기 위해서 『헤이케모노가타리』가 이용된 점을 설명하였다.

⑩ 김동진(2022), 「李賀 시에 대한 트랜스-동아시아적 고찰- 이세계물 라이트 노벨과의 비교를 통하여 -」, 『중국인문과학』 82, 127-157,

〈초록 중 발췌〉

본고는 선행연구에서 시도되지 않았던 동아시아에서 유행하는 일본 라이트 노벨과의 비교라는 방법을 통해 이하의 환상적이고 황당하며 난해한 시를 분석했다. 이세계물 라이트 노벨에서 상투적으로 사용되는 서사와 스토리 전개방식의 특징을 정리하여 이하 시의 심층적 이해에 도움이 되는 단서로 삼았다. 라이트 노벨에서 주인공은 일반적으로 죽음이나 전이를 통해 이세계에 가서 빠른 속도로 성공하고 타인의 인정과 존경을 받으며 많은 배필을 얻어 함께 난관을 극복해나간다. 이와 유사한 내용은 이하의 시에서도 나타난다. 이하 역시 시속에서 이세계를 꿈꾸고 그곳으로 가기 위해 사망충동을 보이기도 한다. 마르판 증후군으로 인한 외모 콤플렉스와 말직에 따른 적은 봉록 때문에 이성의 애정을 갈망하는 이하는 다양한 여성을 시에 등장시켜 상상 속에서 여성편력을 체험했다. 또한 자신을 발탁해줄 이를 갈망하는 마음을 외로운 여성 이미지에 투영시켰다. 이처럼 이하의 시와 라이트노벨에서 공통적으로 담고 있는 현실에 대한 불만, 죽음을 통한 새 시작을 염원, 타인에게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 여성 이미지와 하렘을 통한 욕망 해소와 대리만족, 여성 이미지로 자신을 대변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이하의 시를 고찰했다.

2.2 동아시아 언어학에서 트랜스 연구 사례

① 신웅철(2022), 「동아시아 4개 언어 한자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과제」, 『동양학』 86집, 185-210.

〈논문 중 발췌〉

본 논문에서는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의 한자어를 어휘의 의미를 중심으로 연결한 ‘동아시아 4개 언어 한자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과정과 현황에 대해 소개하고 향후 보완 및 확장의 가능성에 대한 시론을 제시하였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한자어라는 공통 문명 자산을 통해 동아시아 한자문명의 성격을 분석하고 규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축되었다. 본 데이터베이스의 설계에서는 단어의 표기나 형태가 아닌 의미적 대응 관계에 주안점을 두었다. ‘일 - 한 - 중 - 베트남 동형 2자 한자어 데이터베이스’의 사례를 들어 동아시아 한자어에 대한 언어 횡단적 연구에서 형태(한자 표기의 같고 다름) 중심으로 이루어진 접근법의 문제점으로 (1) 동일한 한자어가 개별 언어 안에서 갖는 어휘적 위상을 포착하기 어려운 점, (2) 의미적으로 높은 동가성을 갖는 대역어가 배제되는 점을 지적하였다. ‘동아시아 4개 언어 한자어 데이터베이스’는 의미 중심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그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한자어의 언어 횡단적 연구를 보다 유의미하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전개하기 위한 토대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인 데이터베이스 설계에서는 한국어를 기준언어로 삼아 일정한 사용빈도와 상용도가 인정되는 어휘목록으로서 “한국어기초사전”에 수록된 한자어 21,763개를 이용하였다. 아울러 이들 한국어 어휘에 의미적으로 동가에 가까운 어휘로서 중국어 23,091개, 일본어 19,517개, 베트남어 7,761개의 대역어 선정의 과정에 대해 서술하였다. 각 언어의 어휘에 대해서 형태 정보와 의미 정보를 각각 입력하였고 그것을 기반으로 각 어휘의 의미와 형태가 대응하는 양상을 생키 다이어그램의 형식으로 가시화할 수 있었다. 다만 기준언어인 한국어 어휘에 대해서 한자어 대역어를 찾을 수 없는 것이 상당수 존재하는데, 이들 어휘에 대해서는 향후 비 한자어(=고유어)까지 시야에 넣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② 강병규(2015), 「중국어와 동아시아 언어의 어순 유형」, 『중국어언어연구』 61집, 119-145.

〈논문 중 발췌〉

본고에서는 중국어와 인접해 있는 동아시아 언어의 어순 유형을 고찰해 보았다. 본 연구가 선행 연구에 비해 가지는 차별적인 특징은 세계언어지도 집(WALS)의 자료를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변환하여 다양한 통계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는 점이다. 특히 중국어라는 개별 언어의 어순 유형을 논하기 이전에 동아시아언어가 전 세계 언어와 비교해서 가지는 특징을 조망하고 그 안에서 중국어가 차지하는 위치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본고는 중국어와 중국 주변 동아시아 언어 중에 어순 정보가 기록된 200여개의 표본을 뽑아서 통계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통계적 분석 방법으로 사용한 것은 빈도분석, 교차 분석(카이검정), 상관 분석, 다차원척도 분석 방법이다.

분석 결과 중국어를 비롯한 동아시아 언어는 세계 다른 지역의 언어에 비해 일정한 언어지리유형학적인 특징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어순 유형의 측면에서 동아시아 언어는 (S)VO 어순보다는 (S)OV 어순을 가진 언어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중심명사 뒤에 부치사가 사용되는 후치사의 사용이 빈번하게 관찰된다. 한편 지리적으로 동북아시아 지역의 언어나 히말라야 산맥 주변의 한장어들은 (S)OV 어순 특징이 강한 반면 동남아시아 지역은 전형적인 (S)VO 어순 특징을 가진다. 언어지리유형학적으로 볼 때 중국어의 어순 유형은 동북아시아 언어와 동남아시아 언어의 중간적인 특징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중국어는 북쪽의 (S)OV형 언어적 특징과 남쪽의 (S)VO형 언어적 특징이 혼합된 형태의 언어이다. 이는 언어 지리유형학적으로 중국어의 지리적인 위치와 일정한 상관성을 가진다는 관점과도 부합되는 특징이다. 요컨대 중국어는 기본적인 (S)VO 어순 유형의 기초 위에 지리적으로 인접한 여러 (S)OV 어순의 특징이 융합된 역동적으로 변화 중인 언어라고 할 수 있다.

③ 오효정·박용진(2022), 「동시출현 단어 분석을 활용한 한·중 언어의 대조 분석 연구 동향 탐색」, 『중국어 교육과 연구』 38호, 1-19.

〈논문 요약〉

본 연구는 1976년~2019년까지 1,316개의 한·중 언어 대조 연구 성과를 대상으로, 각 논문의 ‘제목’과 ‘개요’에 대해 ‘동시 출현 단어 분석’ 및 ‘네트워크 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분석함으로써, 한·중 언어 대조 분석의 연구 동향을 살펴보았다. 대조 분석의 결과는 L2 중국어 학습(습득)/교육(교수)에 응용되는 것이 최종목표이기에, L2 중국어의 학습(습득)/교육(교수)과 한·중 언어 대조 분야가 어떻게 연관되었는지를 찾아보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한·중 언어 대조는 분석 내용이 점차 세부화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한·중 언어에 담겨 있는 ‘문화’ 연구가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다. 지금까지의 대조 연구는 지나치게 언어 연구에 집중되어 있었는데, 따라서 향후 대조 연구는 ‘L2 한·중 언어 교육’에 대한 대조 연구가 시작되기를 기대해 본다.

L2 교육 연구에 있어, ‘학습자’와 ‘교수자’ 중에서 지금까지의 연구는 대부분 ‘학습자’ 위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우리는 ‘교수자’를 위한 연구가 시작되기를 기대해본다. 예를 들어, ‘문법’ 연구에 있어서도, 이론문법 연구와 교육문법 연구가 있고, 또 교육문법 연구 중에서, 학생 중심의 문법 연구가 있고, 교사 중심의 문법 연구가 있다. 이와 같이, L2 교육 연구 역시 ‘학습자’를 위한 연구와 ‘교수자’를 위한 연구가 구분이 될 필요가 있다.

④ 장정임·선민정(2022), 「한·중·일 ‘自己’ 관련 어휘 비교 연구—트랜스-동아시아 언어 연구의 일례」, 『중국학논총』 76집, 43-74.

〈논문 중 발췌〉

본 논문에서는 탈지역적 언어 비교를 통해 한·중·일 언어의 ‘自己’ 관련 어휘를 비교·분석하였다. 현대 중국어의 自己는 원래 상고 중국어의 自와 己가 결합된 이음절어로, 동한(기원후 25-220) 말 처음 등장하였다. 현대 중국어의 自己는 상고 한어의 재귀 부사 自와 통칭대명사 己의 용법을 계승하여 통칭대명사, 재귀대명사, 강조 재귀 부사로 쓰인다. 한편, 自나 己에는

없었던 강조재귀사의 형용사적 용법도 갖게 되었다.

한국어와 일본어에서 ‘자기’는 여러 합성어를 만들고, ‘자신’은 강조재귀사의 형용사적 용법으로 쓰인다는 공통점이 있다. 다만, 일본어는 현대에 들어와 自分が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다. 시간적 선후 관계를 보면 自己류 어휘(自己, 自ら, 己)가 나라·헤이안(710-1185)부터 에도(1603-1868) 시대까지 압도적인 주류를 차지하였다. 메이지 시기(1868-1912)에 들어 自分の 비중이 급등하였고, 다이쇼·쇼와 시기(1912-1989)에 이르러 단연 주류를 차지하게 되었다.

현대 일본어에서 自分は 통칭대명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첫째, 한·중·일 언어에서는 재귀대명사의 위상이 명확하지 않으며, 통칭대명사가 재귀대명사로 쓰이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自己’ 관련 어휘는 한·중·일이 차이가 있으며, 비록 형태가 같을지라도 언어마다 통사 기능이 상이함을 보여 주었다.

⑤ 정지수·김석영(2022), 「중국의 동아시아 한자어 연구 동향 분석—CNKI 학술지 데이터를 중심으로」, 『중국언어연구』 102집, 29-65.

〈논문 중 발췌〉

본고는 중국의 학술 데이터베이스 CNKI의 학술지 논문 중 중문 ‘사회과학’ 범주에 속하는 논문을 대상으로 하여 한자어 관련 키워드로 한중일월 한자어 연구 논문을 수집하고, 관련성을 검토한 후 총 983편의 논문을 추려 이를 대상으로 연도별, 키워드별 양적 분포를 중심으로 한 기초 분석, 대상 어종별 구분을 중심으로 한 다층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는 중국의 한중일월 한자어 연구의 특징을 다음의 몇 가지로 파악하였다.

첫째, 일본어 한자어 관련 연구는 중일 간의 차용어, 특히 일본어로부터 온 차용어를 중심으로 한 연구가 주를 이루며, 동형어 연구의 경우에도 개별 어휘 대조와 같은 미시적 연구가 상대적으로 많다. 또한 한자어 연구의 기초 자료로 쓰이는 문헌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여러 문헌에서 발굴해

낸 어휘에 대한 미시적 분석도 다수 진행되었다. 바로 이러한 점이 중국의 한중일월 한자어 연구 중 중일 한자어 연구가 가장 활발히 진행될 수 있는 이유라 하겠다.

둘째, 한국어 한자어 관련 연구는 동형어 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일본어 한자어 관련 연구와 달리 거시적 대조 연구가 많다. 또한 교육 관련 연구가 많고, 교육 분야 연구에서는 한국인 대상 중국어 교육 연구에서 중국인 대상 한국어 교육 연구로 중심이 이동하여 왔으나, 최근 크게 감소하였다.

셋째, 베트남어 한자어 관련 연구는 비주류에 속하여 연구 수량이 절대적으로 적고, 미시적 연구도 적다. 또한 베트남인 연구자의 활발한 연구 참여가 두드러지며, 연구자의 소속기관 분포가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연구 저변 확대가 필요해 보인다.

⑥ 최신혜(2023), 「초급중국어 교재의 형용사 어휘 목록 분석 및 제안—트랜스-동아시아 언어 연구의 일례」, 『중국언어연구』 108집, 347-378.

〈논문 중 발췌〉

본고는 국내 대학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초급중국어 교재 『중국어 마스터』 step1~step3과 『신공략 중국어』 1~3을 대상으로 어떤 형용사들이 소개되고 있으며, 이들 교재에 수록된 형용사 목록이 국제 중국어교육의 새로운 기준인 『중문등급표준』의 초급 어휘 형용사 목록에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살펴보았다. 본고는 또한 초급한국어 어휘 내 형용사 목록을 기준으로 특히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초급중국어 학습자들에게 유용한 형용사 어휘를 함께 살펴보았다. 두 교재 모두 국내에서 주로 한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학습자가 자주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초급중국어 형용사를 우선적으로 수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초급중국어 교재에 중·고급 어휘의 비율을 낮출 필요가 있지만, 초급한국어 형용사에 대응되는 중·고급 형용사의 경우 한국인 학습자의 활용도가 높은 어휘를 선택적으로 교재에 반영할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이외에도 최신혜는 「한국어와 중국어의 소유·존재 개념 표현 고찰—‘有’, ‘在’, ‘있다’를 중심으로」⁷⁾에서 소유·존재 개념지도를 바탕으로 한국어와 중국어의 소유·존재 개념 표현 ‘有’, ‘在’, ‘있다’를 고찰한 바 있으며, 「현대중국어 형용사 술어문의 ‘很’ 기능 연구—대조언어학적 접근을 중심으로」⁸⁾, 「현대중국어 형용사의 동태적 의미—‘了’ 부가를 중심으로」⁹⁾ 등에서 중국어를 한국어를 비롯한 다른 언어와 대조 분석하는 가운데 중국어의 문법 현상을 연구한 바 있다.

⑦ 고미숙(2023), 「L1이 L2의 습득과정에 미치는 영향—중국어 /l/, /r/과 한국어 /ㄹ/의 음향음성학적 특성을 중심으로」, 『중국어 교육과 연구』 41집, 155-172..

〈논문 요약〉

본 논문은 중국 원어민이 발화한 유음 /l/, /r/과 한국인 학습자가 발화한 중국어 유음 사이의 음향음성학적 특징을 대조해 보고, 이를 통하여 모어인 L1의 유음이 L2의 유음 습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인 실험 결과를 통해 논의해 보았다. 실험 결과를 통하여 우리는 한국인 학습자가 L1 유음의 간섭으로 인해 L2에 존재하는 두 개의 유음을 정확하게 습득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국인 초급 학습자는 초성의 위치에 오는 중국어 유음 /l/과 /r/을 /ㄹ/의 어두 초성 변이음인 탄설음 [r]로 대체해서 발음하고 있음을 유음의 길이와 포먼트의 대조 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었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볼 수 없었던 음향음성학적 방법을 통한 두 피험자군 간의 대조를 통하여 확실하게 두 언어 사이에 간섭작용이 존재함

7) 최신혜(2013), 「한국어와 중국어의 소유·존재 개념 표현 고찰—‘有’, ‘在’, ‘있다’를 중심으로」, 『중국어어문논총』 56집, 105-128.

8) 최신혜(2018), 「현대중국어 형용사 술어문의 ‘很’ 기능 연구—대조언어학적 접근을 중심으로」, 『중국어학논총』 62집, 27-50.

9) 최신혜(2020), 「현대중국어 형용사의 동태적 의미—‘了’ 부가를 중심으로」, 『중국어학논총』 69집, 27-51.

을 증명하였다.

⑧ 고은미(2023), 「한중 ‘sharp-blunt’ 의미장 대조 분석— 모스크바 어휘유형론(MLexT)의 관점에서」, 『중어중문학』 91집, 269-294.

〈논문 중 발췌〉

본고는 MLexT의 어휘유형론 연구방법론을 한국어와 중국어 어휘의미의 대조연구에 응용한 것으로, 유형론적 시각에서 한국어와 중국어의 ‘sharp-blunt’류 의미장의 개념화와 파생의미를 대조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한국어 ‘sharp’ 의미장은 기능 프레임이 뚜렷하며, ‘침예하다’가 단독으로 점 프레임을 나타내기에, 기능 프레임 내에서 ‘점’ 프레임이 현저하다. 반면에 중국어 ‘sharp’ 의미장은 기능 프레임이 뚜렷하며, ‘선’ 프레임은 ‘快’로, ‘점’ 프레임은 ‘尖利’, ‘銳利’로 나타내기에, 기능 프레임 내에서 ‘선’과 ‘점’의 대립이 뚜렷하다.

한국어 ‘blunt’ 의미장은 ‘뭉뚱하다’가 기능 프레임과 형상 프레임을 포괄적으로 묘사하며, ‘무디다’가 기능 프레임 전부를 묘사한다. 반면 중국어 ‘blunt’ 의미장은 형상 프레임이 존재하지 않으며, ‘鈍’이 기능 프레임을 묘사한다. 한국어와 중국어의 ‘sharp’ 의미장은 모두 도구 사용자 관점의 긍정적 파생의미와 수동자 관점의 부정적 파생의미를 가진다. 부정의미 중 한국어 ‘sharp’ 의미장은 청각, 후각상 불쾌한 감각을, 중국어 ‘sharp’ 의미장은 청각상 불쾌한 감각만을 나타낸다. 영상도식 관련 파생의미는 중국어에만 있는데, ‘銳’가 <급속>의 의미를 나타낸다. 중국어와 한국어의 ‘blunt’ 의미장은 모두 <(인지, 반응)우둔>의 부정의미를 가진다.

⑨ 오윤지·김혜경(2023), 「한중 미래 의미 표지법 대조 연구- 미래문법형태 ‘-겠-’과 ‘要’를 중심으로」, 『한중언어문화연구』 67집, 119-148.

〈논문 중 발췌〉

본 연구는 중국어의 ‘要’와 한국어의 ‘-겠-’을 대조 연구함으로써 미래문법 형태와 관련된 언어학적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개념적 유사성을 공유하는 한중 언어의 미래문법형태는 그러나 각 언어에서 서로 다른 문법적 범주에 속해있다. 본고는 이러한 분류가 해당 언어의 전체적인 체계와 시간 개념 표지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처리임을 보였다.

본고는 ‘要’와 ‘-겠-’의 문법화 과정에 대한 고찰을 통해 미래문법형태의 문법화는 해당 언어의 유형학적 특성과 시간을 나타내는 기타 문법형태의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음을 보였다. ‘要’의 문법화는 시간순서원칙을 준수하는 중국어의 고립어로서의 특징과 관련되며, ‘-겠-’의 문법화는 시제 표지로 발전한 ‘-었-’과의 계열관계 형성, 비현실 서법 표지 ‘-리-’의 쇠퇴 양자에 모두 영향을 받았다. 이러한 관찰을 통해 미래문법형태의 문법화에서는 단방향성이라는 의미에서의 일관성보다는 언어적, 개념적 사실과 부합한다는 정합성이 더욱 강조될 필요가 있음이 드러난다.

< 參考文獻 >

- 강병규(2015), 「중국어와 동아시아 언어의 어순 유형」, 『중국언어연구』 61집, 119-145.
- 강희진(2020), 「재일조선인 시에 나타난 트랜스내셔널의 특징 및 의미」, 『어문연구』 114, 359-377.
- 고미숙(2023), 「L1이 L2의 습득과정에 미치는 영향—중국어 /l/, /r/과 한국어 /ㄹ/의 음향음성학적 특성을 중심으로」, 『중국어 교육과 연구』 41집, 155-172.
- 고은미(2023), 「한중 ‘sharp-blunt’ 의미장 대조 분석—모스크바 어휘유형론(MLexT)의 관점에서」, 『중어중문학』 91집, 269-295.
- 김동진(2022), 「李賀 시에 대한 트랜스-동아시아적 고찰—이세계물 라이트 노벨과의 비교를 통하여」, 『중국인문과학』 82, 127-157.
- 김미지(2021), 「한중일의 ‘제임스 조이스’ 담론과 매체 네트워크」, 『구보학보』 28,

95-122.

- 김영근(2022),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생명정치와 인간의 안전보장」, 『국가와 정치』 28(1), 139-172.
- 김진아(2023), 「인류의 진화와 포스트휴머니즘 담론에 대한 논고 - 트랜스휴머니즘과 순자의 인간관을 중심으로 -」, 『윤리연구』 140(1), 89-113.
- 김환기·가와무라 미나토(2022), 「온택트(ontact) 시대의 월경(越境)과 디아스포라 문학」, 『일본학』 57, 17-37.
- 김휘택(2023), 「포스트휴먼, 트랜스휴먼, 그리고 인간 정체성의 분화」, 『다문화콘텐츠연구』 45, 187-219.
- 나누리·김수미·김준연(2024), 「近世 韓·中·日 女流 詩人의 사랑시에 대한 '트랜스 동아시아적' 접근」, 『한중언어문화연구』 71, 179-215.
- 노윤지(2023), 『아시아 여성 교류사 연구』에 나타난 제한일본인처에 대한 인식 고찰」, 『인문사회』 21, 14(1), 2783-2794.
- 류호현·선민정·이가현·장정임(2022), 「트랜스-동아시아 연구 매뉴얼」, 『고려대 4단계 BK21 중일교육연구단 2022년 1학기 사업설명회 자료집』.
- 류호현·이가현(2022), 「트랜스 동아시아 BL 대중화 경향 연구 - 한·중·일 3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일어일문학』 94, 149-168.
- 방경희(2023), 「인구 고령화와 트랜스 동아시아 - 일, 한, 중 3국의 인구 고령화 추이와 정책 대응 -」, 『인문학연구』 54, 73-107.
- 손민석(2022), 「트랜스내셔널 이주 시대, 환대와 공생을 위한 공동체적 실천: 세일라 벤하비브의 세계시민주의 재검토」, 『통일과평화』 14(2), 425-459.
- 신웅철(2022), 「동아시아 4개 언어 한자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과제」, 『동양학』 86집, 185-210.
- 안민화(2021), 「박수남 감독 다큐멘터리 속 오키나와의 강제징용 군속과 위안부 재현 연구: 마이너 트랜스내셔널한 기억과 '비커밍 아웃'으로서의 증언」, 『문학과학영상』 22(3), 739-778.
- 안민화(2023), 「비교의 공동체: 어떻게 한국영화와 일본영화는 동시대성을 만들어 낼 수 있는가?」, 『횡단인문학』 15, 51-80.
- 오윤지·김혜경(2023), 「한중 미래 의미 표지법 대조 연구- 미래문법형태 '-겠-'과 '要件'을 중심으로」, 『한중언어문화연구』 67집, 119-148.
- 오효정·박용진(2022), 「동시출현 단어 분석을 활용한 한·중 언어의 대조 분석 연구 동향 탐색」, 『중국어 교육과 연구』 38호, 1-19.
- 윤지우(2023), 『《광문자전》의 트랜스미디어 콘텐츠 활용 양상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경미(2023), 「韓・中・日 고전문학 속에 보이는 여성과 눈(雪)」, 『중국인문과학』 85, 207-225.
- 이관표(2022), 「미래 포스트/트랜스휴머니즘에서 정의의 문제: 전통 정의론으로 보는 미래 인간론」, 『국제문화기술진흥원』 8(5), 315-320.
- 이시환(2023), 「근대 초기 한중일 번역문학의 상호텍스트성 -한중일 『십오소년표류기』의 번역을 중심으로」, 『중국학』 82, 261-286.
- 이종원·윤여탁(2018), 「계승어 교육에서 운동주 시의 활용 가능성 - 트랜스내셔널리즘의 관점에서」, 『문학교육학』 61, 269-296.
- 이주영(2023), 「체노사이드 다큐멘터리 영화의 트랜스미디어적 변화 연구: '체현'과 '전치' 중심으로」, 『민주주의와 인권』 23(1), 215-248.
- 이호걸(2022), 「탈냉전기 한국에서의 '동아시아 영화 연구' 동향」, 『영화연구』 91, 291-326.
- 이호걸(2023), 「〈승리호〉 '코스모스': 시네마, 네트워크, 동아시아」, 『아시아영화연구』 16(1), 113-142.
- 장우순·문치웅(2022), 「트랜스유라시아어의 요서 기원 가설'에 대한 비판적 검토」, 『동아시아고대학』 67, 83-108.
- 장정임·선민정(2022), 「한·중·일 '自己' 관련 어휘 비교 연구— 트랜스-동아시아 언어 연구의 일례」, 『중국학논총』 76집, 43-74.
- 정지수·김석영(2022), 「중국의 동아시아 한자어 연구 동향 분석— CNKI 학술지 데이터를 중심으로」, 『중국어언어연구』 102집, 29-65.
- 최신혜(2013), 「한국어와 중국어의 소유·존재 개념 표현 고찰— '有', '在', '있다'를 중심으로」, 『중국어문논총』 56집, 105-128.
- 최신혜(2018), 「현대중국어 형용사 술어문의 '很' 기능 연구— 대조언어학적 접근을 중심으로」, 『중국학논총』 62집, 27-50.
- 최신혜(2020), 「현대중국어 형용사의 동태적 의미— '了' 부가를 중심으로」, 『중국학논총』 69집, 27-51.
- 최신혜(2023), 「초급중국어 교재의 형용사 어휘 목록 분석 및 제안—트랜스-동아시아 언어 연구의 일례」, 『중국어언어연구』 108집, 347-378.
- 최윤영(2020), 『트랜스미디어 스토리월드의 확장 사례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채민(2023), 「동아시아 고전 서사의 트랜스미디어 연구: NHK 대하드라마 〈다이

- 라노 기요모리(平清盛)를 중심으로」, 『일본연구』 39, 37-66.
- 한채민(2023), 「동아시아 청년이 내면화한 중세적 일본정신과 제 양상—『태풍』 속 트랜스아이덴티티와 타자 인식을 중심으로—」, 『일본학연구』 68, 99-126.
- 한채민(2023), 「『동인도제도이야기(東印度諸島物語)』로 보는 전시기 트랜스 동아시아 문화의 발견」, 『문화와융합』 45(8), 521-531.
- 허원영·박세환(2023), 「일본의 원조 이념 변화에 대한 트랜스-동아시아적 접근」, 『한국과 국제사회』 7(1), 345-367.
- Hwang Donhyoun(2023), 「Tokyo and the Rise of Radicalism in Early Twentieth Century Eastern Asia」, 『일본문화연구』 88, 5-39.